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황 보 정

지도교수 박 희 옥

황
보
정

2
0
2
3
년

2
월

2023년 2월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박 희 옥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 0 2 3 년 2 월

계 명 대 학 교 대 학 원
간 호 학 과

황 보 정

황보정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 심 문 경 차

부 심 손 순 영

부 심 박 희 옥

계 명 대 학 교 대 학 원

2 0 2 3 년 2 월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용어정의	4
II. 문헌고찰	7
1. 대학생활 적응	7
2. 대학생활 적응 영향요인	9
III. 연구방법	13
1. 연구설계	13
2. 연구대상	13
3. 연구도구	14
4. 자료수집 및 절차	15
5. 자료분석	16
6. 윤리적 고려	17
IV. 연구결과	18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8
2.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	21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	22
4.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 및 대학생활 적응의 상관관계	25
5.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26
V. 논의	30

VI. 결론 및 제언	35
참고문헌	36
부 록	49
영문초록	64
국문초록	66

표 목 차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9
표 2.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	21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	23
표 4.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 및 대학생활 적응의 상관관계	25
표 5.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2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71.5%이며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교육부a, 2022; 통계청, 2021). 그 중 간호대학은 신·증설을 통해 간호학과 수가 2011년 184개에서 2020년 203개로 증가하였고, 간호학과 입학 정원도 2011년 15,474명에서 2020년 20,69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대한간호협회, 2021).

간호학 교육과정은 해부학, 생리학 등의 전공기초과목과 임상실습을 포함한 엄격한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은 국가고시 합격이라는 큰 부담감을 가진다(곽윤경, 2013; 김은아와 박경임, 2014; 박현대, 2014). 따라서 간호학과 학생들은 신입생부터 학업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최효진과 이은주, 2012). 또한 높은 취업률로 전공과정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며, 적성의 불일치로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할 가능성이 있다(김은아, 2011; 제남주와 박미라, 2018). 대학생활 적응도가 낮을수록 학업중단 고려 가능성은 높아진다(박한샘, 2017). 유사 계열인 의과학의 경우 2021년 중도탈락 비율이 0.18%인 것에 비해 간호학에서는 2.09%로 더 높게 보고되고 있다(교육부b, 2022). 따라서 간호학과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한 관심과 방안이 필요하다.

간호학과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최근까지의 연구는 인성,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교수-학생 상호작용, 교우관계, 사회적지지, 대인관계능력, 부모와 관계, 정서지능과 연관되어 수행되었다(김미영, 정지수와 양창의, 2020; 박현대, 2014; 방설영, 2021; 서영숙과 정추영, 2017; 오윤정, 2017; 오은진과 박순아, 2016; 이영옥, 전운화와 김미선, 2018; 임경민과 박정훈, 2018; Wintre & Yaffe, 2000). 하지만 본 거주지를 떠나 대학생활을 하는 타 지역 거주 대학생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다.

타 지역 거주 대학생은 개인적, 사회적 이유로 타향의 대학교로 진학 후 학업을 진행하는 학생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유학생과 공통점이 있다(이재모, 2008).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에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외로움, 대인관계 등이 보고되었다(박은미, 황병의와 정태연, 2010; 황병의, 2010). 또한 사회적 지지와 밀접한 사회적 관계는 다양한 변화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어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구승신, 정옥희와 장성화, 2011; Kahn & Antonucci, 1980; Takahashi & Sakamoto, 2000). 이에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학생은 감소된 대인관계와 타지 거주에 따른 외로움, 감소된 지지체계 등의 어려움으로 대학생활 적응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인성은 개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바람직한 심성과 사회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가치 있는 인격 및 행동의 특성이다(박성미와 허승희, 2012). 간호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 간호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역량이기도 하다(Weis & Schank, 2000). 발달단계 상 청소년 후기인 간호학과 학생들은 대학생활 동안 청소년 후기 발달과업 성취를 통한 인격 발달이 필요하다(이미련과 곽윤경, 2017; 이미영, 2020). 따라서 간호학과 학생은 전공과정 동안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성수준을 확보해야 한다(허명륜과 장양민, 2019). 인성은 사회적 지지체계에 영향을 받으며, 연령과 학년에 따라 더욱 성숙해지는 특성을 가진다(성명희와 김은주, 2015; 윤영주와 김중경, 2022). 하지만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경우 연령이 어리고, 가족 및 대인관계의 지지가 부족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그들이 타지에서 느끼는 외로움 등의 스트레스 상황들은 인성의 발달과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스트레스 상황을 유연하게 조절하게 하는 자아탄력성은 융통성을 발휘하여 상황에 잘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김미향과 김성희, 2010). 타 지역 거주 신입생의 경우 본 거주지를 떠나 타지의 대학 소재지에서 거주하게 되므로, 입학 후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에 높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박영주 등, 2002). 기숙사 거주 학생의 경우 기숙사 거주를 유지하기 위한

학점 부담감으로 학업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이외선, 홍민주와 구혜자, 2016).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다양한 스트레스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에(민소영, 2013; 송영숙, 2011; 이옥형, 2012; Uslu & Girgin, 2010),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진로선택몰입이란 자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을 진로목표와 동일시하여 가지는 진로선택에 대한 애착과 확신이다(김태환, 2019). 간호학과에 경우 높은 취업률로 전공과정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입학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제남주와 박미라, 2018), 진로선택몰입 수준을 확인하고 대학생활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습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로는 가정환경과 가정의 지원이 있다(Csikszentmihalyi, 2004). 진로선택몰입은 부모, 교수, 친구의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할수록 확신을 가지고 진로를 준비할 수 있다(류진숙, 2012; 전미리, 2020). 하지만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학생은 본가를 떠나 타지 생활을 하며 가정의 지원이 부족하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적다. 따라서 진로를 선택하고 몰입이 필요한 대학생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진로선택몰입의 수준이 약화되고 대학생활 적응에도 어려움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며,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과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과 대학생활 적응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용어 정의

1) 타 지역 거주

- (1) 이론적 정의: 타 지역은 기타 지역으로 그 밖의 또 다른 지역을 뜻하며(국립국어원a, 2022), 거주란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살을 뜻한다(국립국어원b, 2022).
-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타 지역 거주는 본 거주지가 D광역시 이외 지역으로, 대학 진학을 위해 본가를 떠나 D광역시에 거주함을 의미한다.

2) 인성

- (1) 이론적 정의: 인성은 개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바람직한 심성과 사회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가치 있는 인격 및 행동의 특성

을 의미한다(박성미와 허승희, 2012).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인성은 김선주(2017)가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법제처, 2015) 핵심가치덕목에 근거하여 대학 생용으로 개발한 인성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자아탄력성

(1) 이론적 정의: 자아탄력성이란 목표를 지향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조절하며, 융통성을 발휘하여 상황에 잘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김미향과 김성희, 2010).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en (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RS: Ego Resilience Scale)를 유성경과 심혜원(2002)이 번안하고, 수정 및 보완한 자아탄력성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4) 진로선택몰입

(1) 이론적 정의: 진로선택몰입이란 개인이 직업적 선호를 발달시키고 구체화시키는 진로결정과정에서 갖게 되는 직업적 선호에 대한 분명한 의식으로서 진로목표에 대한 애착, 확신, 및 직업적 계획을 준비해 나가는 정도를 의미한다(최수정, 2007).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진로선택몰입은 Blustein, Ellis와 Devenis (1989)가 개발한 직업적 탐색몰입 척도(VECS: Vocational Exploration and Commitment Survey)를 최수정 (2007)이 번안하고 김태환(2013)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5) 대학생활 적응

- (1) 이론적 정의: 대학생활 적응은 대학에서 일어나는 학업활동과 대인관계나 과외활동 등의 사회활동에 적응하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본인이 속한 대학 및 학생들에게 전반적 애착과 호감, 유대감 등을 갖는 것을 말한다(Baker & Siryk, 1984).
-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학생활 적응은 박신영(2017)이 개발한 간호대학생의 전반적 대학생활 적응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II. 문헌고찰

1. 대학생활 적응

적응은 인간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삶의 여러 문제를 주변 환경과 능동적인 상호작용으로 자신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박범혁과 정현숙, 2007). 대학생은 발달단계상 청소년 후기로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생의 목표를 생각하고, 자아정체감을 확립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회인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과정에 해당한다(박현주와 장인순, 2010; 이미영, 2020). 이러한 과도기적 특성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학업과 관련한 지식습득, 경제적 압박, 시간관리 미흡 등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Misra, McKean, West, & Russo, 2000). 즉, 대학생활 적응은 대학 내에서 학업적, 사회적, 심리적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고 적응하여 본인이 속한 대학과 구성원들에 대해 애착과 호감을 갖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Baker & Siryk, 1984).

Baker와 Siryk (1984)는 대학생활 적응을 개인의 내적 적응과 외적 적응을 포함하는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대학환경 적응의 네 가지 차원으로 정의한다(이가영, 최태월과 이용선, 2015). 첫 번째, 학업적 적응은 학업동기, 요구에 대한 반응, 학업환경 만족감, 시간 관리와 목적의식이 구성요소로 학업에 적응하여 학업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 사회적 적응은 대학이라는 사회에 적응하는 정도, 사회적 지지체계의 형성, 새롭게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의 관리, 교수 및 친구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세 번째, 개인·정서적 적응은 인성형성의 핵심이 되는 자기탐색과정을 통한 정서적 적응을 의미한다. 네 번째, 대학환경적응은 대학 애착도와 만족도, 학업목표에 대한 몰입을 의미한다(김효원, 2005).

특히 간호학과 학생에게 대학생활 적응은 성인 초기 발달과업의 달성을

통해 임상적응력이 높은 신규간호사의 배출을 위해 중요하다(최지혜와 박미정 2013). 또한 대학생활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성숙과 적응은 발달과업 성취와 더불어 학과 적응과 전공만족도, 취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진아와 이은경, 2011; 소용준과 박준성, 2016; 송윤정과 조규판, 2016). 이는 대학생활 적응이 증가할수록 직업정체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간호사 이직률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이미라와 김미자, 2018). 하지만 대학생들이 대학생활 적응 곤란으로 인해 휴학이나 자퇴를 결정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대학생활 적응은 중도 탈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송윤정, 2014; 유계숙과 신동우, 2013). 대학생활 적응도가 낮을수록 학업중단 고려 가능성은 높아지며(박한샘, 2017), 대학생 학업중단 및 중도탈락률은 보건, 가정, 체육계열에서 가장 높았다(최길순, 2010). 또한 거주지와 대학소재지가 일치하는 학생일수록 학업을 지속할 확률이 높았는데(노혜란과 최미나, 2008), 이는 본 거주지와 대학소재지가 다를 경우 중도탈락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외국의 경우도 집을 떠나 생활하는 대학 신입생들이 성적미달이거나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는 것은 물리적 환경과 같은 주거의 적응 문제라 보고하였다(Delgadillo & Erickson, 2006). 유학생의 경우에도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으로 외로움, 대인관계 등이 보고되었다(박은미 등, 2010; 황병의, 2010).

이상의 문헌고찰에 따르면, 원활한 대학생활 적응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해 나가며, 간호사로서 사회진출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하지만 본가를 떠나 타 지역에서 학업을 하는 대학생의 경우 외로움과 대인관계 문제, 새로운 주거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적응 관련 내, 외적 요인을 파악하고 성장시켜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 대학생활 적응 영향요인

간호학과 학생에 대한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최근까지의 연구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학업성취도, 교수신뢰, 교수-학생 상호작용, 사회적지지, 교우관계, 학습몰입, 대인관계능력 등과 관련해 다양하게 보고되었다(김미영 등, 2020; 문명자와 이선희, 2016; 변은경과 안은선, 2019; 서영숙과 정추영, 2017; 서형은과 김혜진, 2022; 오윤정, 이은선, 박명숙과 이은미, 2021; 오윤정, 2017; 오은진과 박순아, 2016; 오지현, 2014; 임경민과 박정훈, 2018; 진은영과 정춘화, 2020; Wintre & Yaffe, 2000).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하여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법제처, 2015)의 제정을 통해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인성교육의 대상이 대학생으로 확대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인성 덕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최연화, 2022). 또한 최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인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간호조직의 협력에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이미련과 남문희, 2018). 간호는 이론과 실무를 중심으로 총체적인 인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측면의 전인간호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기예(황성자, 2006), 윤리적 직업의식의 함양이 요구되는 간호학과와 전공 특성 상 간호학과 학생들은 전체 대학생들보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배영주와 곽윤경 2017; Numminen, Leino-Kilpi, Van Der Arend, & Katsjisto, 2009). 이에 병원은 신규간호사 채용 과정에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해 확대 적용하며, 올바른 인성함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김상돌, 2013; 양승실, 김현진과 주경필, 2006; 정우정과 유명미, 2019). 하지만 간호학과 학생은 입학 초기부터 과중한 학습량과 임상실습의 부담감으로 스트레스가 높아(박현주와 장인순, 2010), 인성발달을 위한 환경은 취약하다(이미련과 곽윤경, 2017).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법제처, 2015). 올바른 인성을 함

양하는 대학생은 대학생활 동안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이룰 것으로 사료되어 인성은 대학생활 적응에 큰 의미를 가진다.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와 역경 속에서도 신체적, 심리적 문제없이 건강하게 적응하는 아동들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심리학적 개념이다(서정희, 2012; Block & Block, 1980). 따라서 자아탄력성이란 목표를 지향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조절하며, 융통성을 발휘하여 상황에 잘 적응하는 능력으로 설명된다(김미향과 김성희, 2010).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낮은 상황에 불안해하지 않으며, 대인관계나 사회적 측면에서 안정적이기에(송영경, 2006),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은 낮은 환경과 스트레스 상황에 융통성 있게 반응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이 가능하다(이영미, 민하영과 이윤주, 2004; 황선아 2019). 이러한 의미에서 자아탄력성은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내적자원이라 할 수 있다(지은주, 방미란과 전해진, 2013).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은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적응을 높일 수 있으며(박완주, 2009), 생활만족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최민아, 신우열, 박민아와 김주환, 2009). 간호사의 경우에도 높은 탄력성을 겸비한 사람은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스트레스를 대처하기에, 간호현장에서 힘든 상황을 극복하며 경력을 쌓고 전문가로서 발전하였고(Jackson, Firtko, & Edenborough, 2007), 간호사의 탄력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선행연구 결과가 있다(김부남, 오현숙과 박용숙, 2011).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행동방향에 대한 궁극적인 힘을 제공하여 학업적응을 돕고, 스트레스 상황에 발휘되는 적응력으로 간호교육에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인지된다(박민아, 2009).

몰입은 신념과 사고 미래 방향에 대한 강한 애착이며(Blustein et al., 1989), 학문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며, attachment, commitment, involvement, flow 등으로 사용되었다(하영자, 2005). 장현진(2012)은 몰입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을 종합하며, 특정 대상에 대한 심리적 애착상태와 몰두하여 최적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진로선택몰입 또한 이러한 몰입의 개념에서 도출되며 Blau (1988)는 진로선택몰입을 특정 직업

적 목표에 대한 애착상태로 직업적 선호도에 따른 의식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김태환(2019)은 진로선택몰입이란 자신의 신념 및 가치, 삶의 목적을 진로목표와 동일시하여 가지는 진로선택에 대한 애착과 확신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진로선택몰입에서 중요한 것은 선호하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주관적 확신을 얻는 과정으로(Harren, 1979), 진로선택몰입이 높은 사람은 결정한 진로를 자아개념에 내재화 하여 이에 따른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Maricia, 1980). 또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진로탐색과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김태환, 2013). 나아가 진로선택몰입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인의 행동을 동기화함으로써 구체적인 취업 준비를 촉진한다(류진숙, 2012; Duffy, Dik, & Steger, 2011). 하지만 진로선택몰입이 적절히 형성되지 않을 때 대학생은 진로를 선택한 이후에도 심리적 문제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으며(김태환 2019; Fuqua, Seaworth, & Newman, 1987; Gordon & Steele, 2015), 대학생활 부정적 정서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수준은 낮다(박은민, 2019). 선행연구에서 진로선택몰입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열정과 인내를 뜻하는 그것의 관계에서 매개요인으로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쳤고(최성범과 한태용, 2020), 정서 안정성, 성실성의 성격요인과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쳤다(김태환, 2013; 전미리, 2020). 몰입과 관련하여 진로결정몰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은 안정된 심리상태에서 진로를 선택하고, 실제 직업생활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었으며(김순미와 이현림, 2008), 전공몰입수준이 높을수록 취업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남진열, 2010). 하지만 간호학과 학생에 대한 진로선택몰입의 수준을 확인하고 대학생활 적응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부재하다.

고찰결과를 종합했을 때, 간호학과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는 다수 수행되었으나, 대부분 간호대학생 또는 간호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서 거주형태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를 확인할 뿐, 타 지역 거주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인성은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간호대

학생의 올바른 인성의 함양은 간호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된다.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을 마주하는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유연한 대처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학업적 적응과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개념이다. 진로선택몰입은 진로목표에 대한 애착과 확신의 과정으로서 직무에 대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가를 떠나 타지생활을 하는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의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변수들이 대학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2학년도 D광역시 소재하는 7개 간호대학의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2022학년도 간호학과 신입생으로 D광역시에 거주 중인 타 지역 출신인 자
- 2) 간호학과 입학 후 3개월 이상의 대학생활을 한 자
- 3)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

대상자 선정기준을 간호학과 입학 후 3개월 이상의 대학생활을 한 자로 선정한 근거는 임유하와 이영선(2019)의 연구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은 3개월을 기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에 근거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G * Power 3.1.9.7 프로그램(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크기인 .15, 검정력 .80, 영향요인 18개로 설정하였을 때 150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201부의 온라인 설문지가 수거되었고, 이 중 출신지를 D광역시로 작성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탈락되는 25부를 제외한 총 175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자가 보고식 온라인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각 연구도구는 개발자 또는 수정, 번안자에게 도구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사용되었다.

1) 인성

본 연구의 인성 측정도구는 김선주(2017)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진흥법 핵심가치덕목에 근거하여 개발한 인성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7개로 하위영역으로는 예, 효, 정직, 존중, 협동, 책임 요인 각 5문항과 배려 4문항, 소통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최저 37점에서 최고 18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인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다.

2) 자아탄력성

본 연구의 자아탄력성 측정도구는 Block과 Kremen (1996)이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 Resilience scale, ERS)를 유성경과 심혜원(2002)이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4문항으로 하위영역으로는 대인관계 3문항, 활력성 2문항, 호기심 5문항, 감정통제 2문항, 낙관성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최저 14점에서 최고 7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Block과 Kremen (199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6$ 이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이다.

3) 진로선택몰입

본 연구의 진로선택몰입은 Blustein 등(1989)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직업적 탐색 몰입 척도(VECS: Vocational Exploration and Commitment Survey)를 최수정(2007)이 번안하고 김태환(2013)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9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최저 19점에서 최고 95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선택몰입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수정(200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고, 김태환(201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다.

4) 대학생활 적응

본 연구의 대학생활 적응은 박신영(2017)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전반적 대학생활 적응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4문항으로 대인관계, 전공만족, 전공수월성, 대처역량, 취업준비, 학업충실도의 6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며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최저 34점에서 최고 17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신영(201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2$ 이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5$ 이다.

4. 자료수집 및 절차

본 연구를 시행하기에 앞서 계명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승인(IRB No: 40525-202203-HR-007)을 받은 후 2022년 6월 20일부터 2022년 7월 1일 까지 자료수집이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해당 대학에 직접 방문하여 학과장에게 연구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승인과 협조를 구한 후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문과 연구를 위한 모바일 SNS 채널을 각 간호대학 간호학과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였다. 모집공고문을 보고 연구 참여의사를 밝혀 모바일 SNS 채널로 접속한 연구대상자에게 모바일 SNS 채널의 공지사항 전달기능을 통해 자료 수집 전 연구의 목적, 내용과 방법 및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자료를 사

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 후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에 한해 온라인 연구 참여 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자료를 수집하였다. 온라인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약 30분이며, 설문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모바일 SNS 선물하기를 통해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 및 대학생활 적응과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 5)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계명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승인(IRB No: 40525-202203-HR-007)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자료 수집 전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사생활 비밀보장, 익명성,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과 연구에 참여하더라도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후 수집된 자료는 익명이 보장되도록 개인 정보는 코드화되어 암호화된 USB에 저장 후 연구자의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였고 연구 자료의 보관 기간인 3년이 경과한 후 문서 파일을 영구 삭제하여 자료의 비밀을 보장할 것이다.

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타 지역 거주 간호대학 신입생의 성별은 150명(85.7%)이 여성으로 평균연령은 20.48세였다. 종교는 무교가 127명(72.6%), 건강상태는 좋음이 90명(51.4%), 가정의 경제수준은 중이 137명(78.3%), 본인 포함 형제 수는 1명이 101명(57.7%) 으로 가장 많았다.

학기 중 수업이 없는 학생이 106명(60.6%)로 수업이 있는 학생보다 더 많았고, 출신지는 경북권이 89명(50.9%)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권(경남, 울산, 부산) 51명(29.1%), 서울권(서울, 경기, 인천) 21명(12.0%), 기타(대전, 충북, 전남, 강원) 14명(8.0%) 순 이었다. 거주형태는 기숙사가 80명(45.7%), 자취가 77명(44.0%), 친척집 18명(10.3%) 순 이었다. 동거인과 함께 생활하는 학생들은 116명(66.3%)이며, 동거인은 친구가 76명(65.5%)로 가장 많았다. 동아리 경험이 있음이 99명(56.6%), 간호학 선택 동기는 다중응답으로 취업을 고려 124명(47.7%)으로 가장 많았고, 적성 고려 80명(30.8%), 부모님 의견 고려 35명(13.4%) 순이었다. 간호학 만족도는 만족~매우 만족이 110명(62.9%), 보통이 61명(34.8%), 매우 불만족~불만족이 4명(2.3%)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75)

특성	구분	빈도(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	25(14.3)	20.48±3.754
	여	150(85.7)	
연령(만)	17~19세	110(62.9)	
	20~24세	42(24.0)	
	25세 이상	23(13.1)	
종교	기독교	26(14.9)	
	천주교	9(5.1)	
	불교	13(7.4)	
	무교	127(72.6)	
건강상태	좋음	90(51.4)	
	보통	85(48.6)	
	나쁨	0(0)	
가정의 경제수준	상	18(10.3)	
	중	137(78.3)	
	하	20(11.4)	
형제 수 (본인포함)	0명	22(12.6)	
	1명	101(57.7)	
	2명	52(29.7)	
수업 유무	예	69(39.4)	
	아니오	106(60.6)	
출신지	서울권(서울, 경기, 인천)	21(12.0)	
	경북권	89(50.9)	
	경남권(경남, 울산, 부산)	51(29.1)	
	기타(대전, 충북, 전남, 강원)	14(8.0)	
거주형태	기숙사	80(45.7)	
	자취	77(44.0)	
	친척집	18(10.3)	
	하숙	0(0)	
동거인 유무	예	116(66.3)	
	아니오	59(33.7)	
동거인 종류*	친구	76(65.5)	
	가족(부모님, 형제, 친척, 조모)	40(34.5)	
학과 친구 수	0~2명	83(47.4)	
	3~5명	67(38.3)	
	6명 이상	25(14.3)	

(표 계속)

표 1. (계속)

(N=175)

특성	구분	빈도(백분율)	평균±표준편차
동아리 경험	있음	99(56.6)	
	없음	76(43.4)	
간호학	적성	80(30.8)	
선택 동기 [†]	부모님의견	35(13.4)	
	취업률	124(47.7)	
	기타 [‡]	21(8.1)	
간호학 만족도	매우불만족~불만족	4(2.3)	
	보통	61(34.8)	
	만족~매우만족	110(62.9)	

* 동거인 유무 중 '유' 선택한 대상자, n=116

† 다중응답 항목, n=260

‡ 수능점수 고려, 고등학교 성적 고려, 전문성이 있는 직업, 간호고등학교 출신,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높은 월급

2.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는 (표 2)와 같다.

대상자의 인성은 5점 만점에 평균 4.10 ± 0.41 점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55 ± 0.62 점이었다. 진로선택몰입은 5점 만점에 평균 3.36 ± 0.59 점이었고, 대학생활 적응은 5점 만점에 평균 3.63 ± 0.58 점이었다.

표 2.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 (N=175)

변수	N	평균±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총 범위
인성	175	4.10 ± 0.41	3.00	5.00	1 ~ 5
자아탄력성	175	3.55 ± 0.62	2.29	5.00	1 ~ 5
진로선택몰입	175	3.36 ± 0.59	2.16	4.89	1 ~ 5
대학생활 적응	175	3.63 ± 0.58	1.59	4.97	1 ~ 5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t=2.71, p=.007$), 종교($F=2.90, p=.037$), 건강상태($t=-3.60, p=.000$), 학과 친구 수($F=7.02, p=.001$), 간호학 선택동기($F=4.11, p=.007$), 간호학 만족도($F=34.72, p=.000$)에서 대학생활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보다 건강상태가 좋은 학생이 보통인 학생보다 대학생활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학과 친구 수 6명 이상인 학생과 0~2명인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 학과 친구 수 6명 이상인 학생은 대학생활 적응 평균 3.93점, 0~2명인 학생은 3.48점으로 학과 친구 수 6명 이상인 학생이 0~2명인 학생보다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간호학 만족도에서도 대학생활 적응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 간호학 만족도가 만족~매우만족인 경우 대학생활 적응 평균 3.85점, 보통인 경우 3.32점, 매우불만족~불만족인 경우 2.41점으로 간호학 만족도가 만족~매우만족일 때 보통이나 매우불만족~불만족 일 때 보다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높았다. 종교 및 간호학 선택동기 항목의 경우 사후검정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

(N=175)

특성	구분	대학생활 적응	
		Mean±SD	t or F(p) scheffé
성별	남	3.92±0.61	2.71(.007)
	여	3.59±0.56	
연령(만)	17~19세	3.57±0.58	1.82(.165)
	20~24세	3.69±0.60	
	25세 이상	3.80±0.52	
종교	기독교	3.54±0.69	2.90(.037) n/a
	천주교	3.71±0.54	
	불교	4.07±0.49	
	무교	3.60±0.55	
건강상태	좋음	3.78±0.56	-3.60(.000)
	보통	3.48±0.57	
가정의 경제수준	상	3.60±0.60	2.13(.122)
	중	3.60±0.56	
	하	3.90±0.65	
형제 수(본인포함)	0명	3.64±0.46	1.89(.154)
	1명	3.70±0.58	
	2명	3.51±0.61	
수입 유무	예	3.61±0.57	-0.47(.638)
	아니오	3.65±0.59	
출신지	서울권(서울, 경기, 인천)	3.79±0.67	1.56(.200)
	경북권	3.55±0.56	
	경남권(울산, 부산, 경남)	3.72±0.57	
	기타(대전, 충북, 전남, 강원)	3.59±0.56	
거주 형태	기숙사	3.62±0.61	2.00(.138)
	자취	3.59±0.52	
	친척집	3.89±0.63	
동거인 유무	예	3.65±0.57	0.65(.518)
	아니오	3.59±0.60	
동거인 종류*	친구	3.59±0.59	-1.55(.125)
	가족(부모님, 형제, 친척, 조모)	3.77±0.52	
학과 친구 수	0~2명 ^a	3.48±0.58	7.02(.001) a<c
	3~5명 ^b	3.71±0.50	
	6명 이상 ^c	3.93±0.65	

(표 계속)

표 3. (계속)

(N=175)

특성	구분	대학생활 적응	
		Mean±SD	t or F(p) scheffé
동아리 경험	있음	3.70±0.54	1.88(.061)
	없음	3.54±0.62	
간호학 선택 동기 [†]	적성	3.80±0.47	4.11(.007) n/a
	부모님의견	3.48±0.75	
	취업률	3.58±0.53	
	기타 [‡]	3.81±0.64	
간호학 만족도	만족~매우만족 ^a	3.85±0.51	34.72(.000) c<b<a
	보통 ^b	3.32±0.46	
	매우불만족~불만족 ^c	2.41±0.57	

* 동거인 유무 중 '유' 선택한 대상자, n=116

† 다중응답 항목, n=260

‡ 수능점수 고려, 고등학교 성적 고려, 전문성이 있는 직업, 간호고등학교 출신,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높은 월급

4.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 및 대학생활 적응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 및 대학생활 적응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인성($r=.632, p<.001$), 자아탄력성($r=.617, p<.001$), 진로선택몰입($r=.533,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 및 대학생활 적응의 상관관계 (N=175)

변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	대학생활 적응
	r(p)	r(p)	r(p)	r(p)
인성	1			
자아탄력성	.449($p<.001$)	1		
진로선택몰입	.457($p<.001$)	.275($p<.001$)	1	
대학생활 적응	.632($p<.001$)	.617($p<.001$)	.533($p<.001$)	1

5.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표 5)와 같다.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 그리고 t-test와 ANOVA 분석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종교, 건강상태, 학과 친구 수, 간호학 선택동기, 간호학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범주형 변수인 성별, 종교, 건강상태, 학과 친구 수, 간호학 선택동기, 간호학 만족도는 가변수 처리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성별 기준: 남=1, 종교 기준: 불교=1, 건강상태 기준: 좋음=1, 학과친구 수 기준: 6명 이상=1, 간호학 선택동기 기준: 적성=1, 간호학 만족도 기준: 매우만족~만족=1).

잔차의 독립성을 검정하기 위해 Durbin-Watson test를 실시하였으며 2.03으로 나타나 2에 가까워 오차의 자기상관성은 없어 잔차의 독립성은 충족되었다. 독립변인 간 공차한계(Tolerance limit)는 .643~.960로 모두 1.0이하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29~1.56으로 기준치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없었다. 회귀모형 적합도 F값은 36.60이고 p값은 <.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 1에서 일반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해 형성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간호학 만족도($\beta=.42$, $p=.000$), 건강상태($\beta=.18$, $p=.008$), 종교($\beta=.17$, $p=.008$)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인 Adj R²값은 30.9%였다. 모형 2에서 인성을 독립변수로 추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인성($\beta=.49$, $p=.000$), 간호학 만족도($\beta=.31$, $p=.000$), 종교($\beta=.13$, $p=.022$)가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²값은 19.9% 증가하였다. 모형 3에서 자아탄력성을 독립변수로 추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고, 자아탄력성($\beta=.40, p=.000$), 인성($\beta=.33, p=.000$), 간호학 만족도($\beta=.32, p=.000$)가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R^2 값은 11.5% 증가하였다. 모형 4에서 진로선택몰입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투입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자아탄력성($\beta=.39, p=.000$), 인성($\beta=.27, p=.000$), 간호학 만족도($\beta=.27, p=.000$), 진로선택몰입($\beta=.17, p=.003$) 이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R^2 값은 1.9% 증가하였다. 이 때 이들 변수의 설명력인 Adj R^2 값은 총 64.8%로 나타났다.

표 5.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N=175)

변수	모형 1					모형 2				
	B	S.E.	β	t	p	B	S.E.	β	t	p
(상수)	3.16	.07		43.70	0.000	0.47	.33		1.45	0.150
성별*	0.18	.11	.11	1.71	0.090	0.15	.09	.09	1.63	0.106
종교†	0.38	.14	.17	2.69	0.008	0.28	.12	.13	2.31	0.022
건강상태‡	0.20	.08	.18	2.70	0.008	0.10	.07	.08	1.47	0.143
학과 친구 수§	0.17	.11	.10	1.57	0.118	0.08	.09	.05	0.91	0.366
간호학 선택동기¶	-0.07	.08	-.06	-0.96	0.339	-0.04	.06	-.04	-0.70	0.486
간호학 만족도¶	0.51	.08	.42	6.48	0.000	0.37	.07	.31	5.37	0.000
인성						0.69	.08	.49	8.43	0.000
			$R^2=.333$					$R^2(\Delta R^2)=.532(.199)$		
			Adj. $R^2=.309$					Adj. $R^2=.513$		
			F=13.99, $p<.001$					F=27.15, $p<.001$		

(표 계속)

표 5. (계속)

(N=175)

변수	모형 3					모형 4				
	B	S.E.	β	t	p	B	S.E.	β	t	p
(상수)	0.07	.29		0.26	0.797	-0.02	.29		-0.29	0.775
성별*	0.06	.08	.03	0.72	0.474	0.05	.08	.03	0.59	0.559
종교 [†]	0.06	.11	.03	0.57	0.571	0.07	.11	.03	0.62	0.538
건강상태 [‡]	0.10	.06	.08	1.72	0.087	0.10	.06	.08	1.74	0.084
학과 친구 수 [§]	0.03	.08	.02	0.42	0.675	0.01	.08	.01	0.10	0.920
간호학 선택동기	-0.01	.06	-.01	-0.16	0.872	-0.01	.05	.01	-0.23	0.816
간호학 만족도 [¶]	0.38	.06	.32	6.39	0.000	0.32	.06	.27	5.18	0.000
인성	0.47	.08	.33	5.94	0.000	0.39	.08	.27	4.88	0.000
자아탄력성	0.38	.05	.40	7.36	0.000	0.37	.05	.39	7.28	0.000
진로선택몰입						0.16	.05	.17	3.06	0.003
	R ² (Δ R ²)=.647(.115)					R ² (Δ R ²)=.666(.019)				
	Adj. R ² =.630					Adj. R ² =.648				
	F=38.09, p<.001					F=36.60, p<.001				

* 더미변수처리 dummy code (남=1, 여=0)

† 더미변수처리 dummy code (불교=1, 기독교 or 천주교 or 무교=0)

‡ 더미변수처리 dummy code (좋음=1, 보통=0)

§ 더미변수처리 dummy code (6명이상=1, 0~2명 or 3~5명=0)

|| 더미변수처리 dummy code (적성=1, 부모님의견 or 취업률 or 기타=0)

¶ 더미변수처리 dummy code (매우만족~만족=1, 보통 or 매우불만족~불만족=0)

V. 논의

본 연구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확인하고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총점 5점 중 평균 3.6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을 측정된 권진희(2022)의 연구에서 평균 3.53점, 지영주와 양승경(2021)의 연구에서 평균 3.41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간호학과 신입생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는 3개월 이상의 대학생활을 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측정하였으므로, 선행연구와 측정 시기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추후 대조군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대학생활 적응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beta=.39, p=.00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선행연구에서도 영적안녕, 생활스트레스, 셀프리더십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가장 큰 대학생활 적응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윤순영과 민신희, 2014; 이영옥 등, 2018; 정혜윤, 2016).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길상(2015)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높은 영향력을 가졌으며($\beta=.40$), 한국인 해외 유학생의 경우에도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이지연, 2014),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타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스트레스에 대해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상당부분 기여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의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자아탄력성은 총점 5점 중 평균 3.55점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

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을 측정한 고미숙(2015)의 연구에서 평균 2.85점, 박선화와 한승희(2016)의 연구에서 평균 2.80점으로 나타나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자아탄력성 수준이 전체 간호학과 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전환되고 습득되는 역동적인 과정이기에(Luthar & Cicchetti, 2000), 비교적 높은 자아탄력성 수준을 가진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들에게는 그들의 높은 자아탄력성 수준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원활한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교수자는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긍정적인 격려와 함께 적절한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인성($\beta=.27$, $p=.000$) 또한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조사한 김정선과 김한나(2016)의 연구($\beta=.20$), 임미혜(2016)의 연구($\beta=.18$)보다 본 연구에서 영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들에게 원활한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인성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본 연구의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인성수준은 총점 5점 중 평균 4.10점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성수준을 측정한 신명수(2021)의 연구결과인 평균 3.98점보다 높았다. 따라서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경우 일반 4년제 대학생보다 인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일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 수준을 측정한 연구는 부재하다. 따라서 추후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반복연구를 통한 직접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학 교양 인성 교육에 대해 연구한 지희진(2013)은 과거의 전통적인 도덕과 윤리 중심의 인성교육에서 배려와 협동의 소통능력을 포함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전문직이 집합된 병원에서 상호 간 협력은 환자의 생명과 연관될 만큼 중요하고(Tang, Chan, Zhou, & Liaw, 2013), 간호사의 인성은 간호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량이다(염은이, 2019). 따라서 인성의 함양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에(이종현, 2016),

신입생 시절부터 배려와 협력 능력의 증진을 위한 인성교육을 통해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진로선택몰입($\beta=.17$, $p=.003$) 또한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인 진로장애와 대학생활 적응 관계에서 진로몰입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정은이(2014)의 연구에서 진로몰입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쳤으며($\beta=.16$),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선택몰입 수준은 총점 5점 중 평균 3.36점으로 측정되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선택몰입 수준을 측정한 이미라(2015)의 연구에서 3.21점, 전미리(2020)의 연구에서 3.13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진로선택몰입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간호학과인 본 연구의 대상자의 진로선택몰입 수준이 일반 대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학과의 특성상 취업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진학과 함께 진로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김명아 등, 2004; 이순영과 정창숙, 2017),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진로선택몰입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선택몰입 수준을 측정한 이순영과 정창숙(2017)의 연구에서도 진로선택몰입이 평균 3.21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과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몰입이 감소하기에, 선택한 진로에 대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학년이 증가할수록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진로스트레스는 의욕상실, 자존감 저하로 이어지며, 진로선택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김현숙, 2014; 이미라, 2015). 간호학과 고학년은 임상실습을 진행함과 동시에 졸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받는 진로스트레스가 진로선택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신입생 시절부터 대학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을 조절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통해 진로선택몰입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통합적 진로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또한 진로선택몰입에 대한 개념이 비교적 최근 대두되어 진로선택몰입과 대학생활 적응간의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 수준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간호학 만족도($\beta=.27, p=.000$)는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지연(2015), 정효주와 정향인(2012), 최진주(2019)의 선행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대학생활 적응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간호학과의 특성상 졸업 후 진로가 뚜렷한 특수성이 있는 학과이므로 전공 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지연, 2015). 또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졸업 후 진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어윤경, 2011),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여 졸업 후에도 임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간호사의 배출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공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간호 연구적 측면에서는, 본 연구에서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이라는 대상을 특정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연구함으로써 기존의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활 적응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추후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프로그램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고 반복연구를 통해 적응 프로그램의 효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 간호 교육적 측면에서는,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해당 요인들을 포함한 대학생활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자료의 마련에 도움이 되었다. 간호 실무적 측면에서는, 본 연구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관련지식을 함양하는 대학생활에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한 영향요인의 파악으로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원활한 적응을 위한 준비를 도울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인성은 윤리적 직업의식을 가져야 하는 간호사에게 더욱 중요한 개념으로 장기적인 과정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대학 신입생시기부터 인성교육을 통한 올바른 인성함양은 차후 간호인성에도 영

향을 미쳐 윤리적 간호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지역 기준 타 지역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추후 다양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타 지역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도구인 설문지를 사용한 연구로 실제적인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단기적으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 및 대학생활 적응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종단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확인하고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평균 3.63 ± 0.58 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자아탄력성($\beta = .39, p = .000$), 인성($\beta = .27, p = .000$), 간호학 만족도($\beta = .27, p = .000$), 진로선택몰입($\beta = .17, p = .003$)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64.8%였다. 따라서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수준의 향상을 위해 자아탄력성의 증진, 올바른 인성 함양, 간호학 만족도 상승 및 높은 진로선택몰입 수준의 증진을 위한 교육과 훈련 및 교과 활동의 개발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D광역시를 기준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집한 결과이므로 전국의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에게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지역별로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에 대한 확대, 반복 연구 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 연구결과에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성 이외 개인적 성격요인을 포함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성, 자아탄력성 및 진로선택몰입을 포함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 고미숙(2015).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학 생활 적응.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0), 280-291. doi:10.5392/JKCA.2015.15.10.280
- 곽윤경(2013). 간호대학생의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5), 2178-2186. doi:10.5762/KAIS.2013.14.5.2178
- 교육부(2022a, 2022 October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2 결과 발표. Retrieved from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92726>
- 교육부(2022b, 2022 October 4). 교육부 대학알리미 중도탈락학생현황. Retrieved from <https://www.academyinfo.go.kr/index.do>
- 구승신, 정옥희와 장성화(2011).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9), 225-237. doi:10.5392/JKCA.2011.11.9.225
- 국립국어원(2022a, 2022 September 2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타지. Retrieved from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D%83%80%EC%A7%80>
- 국립국어원(2022b, 2022 September 2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거주. Retrieved from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A%B1%B0%EC%A3%BC>
- 권진희(2022).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적응유연성 프로그램 효과*. 박사학위, 남부대학교, 광주.
- 길상(2015). *제한중국유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동아대학교, 부산.
- 김명아, 임지영, 김숙영, 김은정, 이종은과 고유경(2004). 간호대학생의 진로

- 태도성숙과 영향요인. *정신간호학회지*, 13(4), 383-391.
- 김미영, 정지수와 양창의(2020).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진로정체감,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지*, 20(6), 1267-1284. doi:10.22251/jlcci.2020.20.6.1267
- 김미향과 김성희(2010). 중학생 자아탄력성 척도개발. *상담학연구*, 11(1), 189-206. doi:10.15703/kjc.11.1.201003.189
- 김부남, 오현숙과 박용숙(2011). 간호사의 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도.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0(1), 14-23.
- 김상돌(2013). 일 지역 병원 간호사와 간호관리자가 인식하는 간호핵심역량 중요도 및 만족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6), 2844-2851. doi:10.5762/KAIS.2013.14.6.2844
- 김선주(2017). 인성교육 진흥법 핵심가치덕목에 근거한 대학생용 인성 척도 개발. *교양교육연구*, 11(3), 217-258.
- 김순미와 이현림(2008).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진로결정몰입 및 진로탐색행동의 구조 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21(3), 27-48.
- 김은아(2011).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예측모형 구축*. 박사학위, 전남대학교, 광주.
- 김은아와 박경임(2014). 간호대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2), 234-243. doi:10.5977/jkasne.2014.20.2.234
- 김정선과 김한나(2016). 대학생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 관련 국내 연구논문의 통합적 고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4), 547-555. doi:10.5762/KAIS.2016.17.4.547
- 김지연(2015).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영향 요인*. 석사학위, 성신여자대학교, 서울.
- 김태환(2013).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인과적 관계*. 석사학위, 서울대학교, 서울.
- 김태환(2019). 대학생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 개발. *진로교육연구*, 32(2), 47-78. doi:10.32341/JCER.2019.06.32.2.47

- 김현숙(2014).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감내력 부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2), 449-467.
- 김효원(2005). *가족체계유형 및 진로결정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남진열(2010). 대학생의 개인적 직업 관련요인들과 취업준비실태의 관계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2(4), 353-375.
- 노혜란과 최미나(2008). 대학생의 중도탈락 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고등교육 인적자원개발 정책 방안: S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연구*, 11(1), 89-107.
- 대한간호협회(2021, 2022 October 4). 간호통계 주요현황. Retrieved from <http://www.koreanurse.or.kr/resources/statistics.php>
- 류진숙(2012).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가족탄력성, 자기결정성 및 진로결정 몰입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 충북대학교, 청주.
- 문명자와 이선혜(2016).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효능감, 학업적 소진과 대학생 활 적응간의 관계.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6(10), 1-11. doi:10.14257/AJMAHS.2016.10.07
- 민소영(2013). 기숙사 거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우울 및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22(4), 265-272.
- 박민아(2009).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 석사학위, 경북대학교, 대구.
- 박범혁과 정영숙(2007).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부모와의 애착 및 대학생활 적응. *가정과삶의질연구*, 25(3), 45-57.
- 박선화와 한승희(2016).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8), 517-526. doi:10.5762/KAIS.2016.17.8.517
- 박성미와 허승희(2012). 청소년용 통합적 인성 척도 개발. *아동교육*, 21(3), 35-47.
- 박신영(2017).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측정도구 개발*. 박사학위, 단국대학교, 용인.

- 박영주, 오가실, 이숙자, 오경옥, 김정아, 김희순, 등(2002). 한국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생활사건 및 건강행위. *대한간호학회지*, 32(6), 792-802.
- 박완주(2009).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비판적 사고성향, 학습양식 및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18(3), 240-250.
- 박은미, 황병의와 정태연(2010). 제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관련 변인들의 중재효과 검증. *스트레스연구*, 18(2), 145-152.
- 박은민(2019). 대학생의 부정적정서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8), 383-401. doi:10.22251/jlcci.2019.19.18.383
- 박진아와 이은경(2011).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17(3), 267-276.
- 박한샘(2017). 지방대학 신입생의 학업중단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C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5), 423-442. doi:10.22251/jlcci.2017.17.15.423
- 박현주와 장인순(2010). 일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과 임상실습 만족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1), 14-23.
- 박현태(2014). 간호학과 신입생의 정서지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3), 1576-1583. doi:10.5762/KAIS.2014.15.3.1576
- 방설영(2021).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인성, 회복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9(6), 409-418. doi:10.14400/JDC.2021.19.6.409
- 배영주와 곽윤경(2017). 일 지역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인성중요도, 인성발달수준 및 교육필요도.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2), 845-853. doi:10.14257/AJMAHS.2017.02.34
- 법제처(2015, 2022 November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성교육진흥법. Retrieved from <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dt=>

20201211&query=%EC%9D%B8%EC%84%B1%EA%B5%90%EC%9C%A1%EC%A7%84%ED%9D%A5%EB%B2%95&subMenuId=15#undefined

- 변은경과 안은선(2019).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유머감각, 인지적 정서조절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련성.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8), 75-84. doi:10.35873/ajmahs.2019.9.8.008
- 서영숙과 정추영(2017).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한국임상보건과학회지*, 5(4), 1040-1047. doi:10.15205/kschs.2017.12.31.1040
- 서정희(2012).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동아대학교, 부산.
- 서형은과 김혜진(2022). 코로나 19 로 인한 비대면학습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간의 관계: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7), 41-51. doi:10.22251/jlcci.2022.22.7.41
- 성명희와 김은주(2015). 대학생들의 인성교육 중요도 인식 및 인성발달 수준과 요구도 분석. *윤리교육연구*, 38, 177-202. doi:10.18850/JEES.2015.38.07
- 소용준과 박준성(2016). 대학생활 적응에 따른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취업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취업진로연구*, 6(4), 23-44. doi:10.35273/jec.2016.6.4.002
- 송영경(2006).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및 학교적응*. 석사학위, 충북대학교, 청주.
- 송영숙(2011). 간호대학생의 우울, 스트레스, 불안, 마음 챙김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23(4), 397-402.
- 송윤정(2014).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동아대학교, 부산.
- 송윤정과 조규관(2016). 대학생의 내재적 전공선택동기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한국교육문*

- 제연구, 34(4), 61-77. doi:10.22327/kei.2016.34.4.061
- 신명수(2021). *대학생의 인성수준과 대인관계능력과의 관계에서 분노조절의 매개효과*. 석사학위, 가야대학교, 김해.
- 양승실, 김현진과 주경필(2006). 기업의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9(2), 145-170.
- 어윤경(2011). 청소년기 진로상담 만족도, 대학 전공만족도 및 진로성숙도간의 관계 분석: 대학 전공선택 요인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2(5), 1793-1811. doi:10.15703/kjc.12.5.201110.1793
- 염은이(2019). 간호대학생의 인성, 대인관계문제, 학업스트레스가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1), 209-220. doi:10.21742/AJMAHS.2019.01.22
- 오윤정(2017).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디지털융복합연구*, 15(7), 307-317. doi:10.14400/JDC.2017.15.7.307
- 오윤정, 이은선, 박명숙과 이은미(2021).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셀프리더십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자료분석학회지*, 23(2), 787-797. doi:10.37727/jkdas.2021.23.2.787
- 오은진과 박순아(2016). 간호대학생의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8), 94-102. doi:10.5762/KAIS.2016.17.8.94
- 오지현(2014).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0), 873-884. doi:10.5392/JKCA.2014.14.10.873
- 유계숙과 신동우(2013). 대학생의 학업 취업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소진 및 취업 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14(6), 3849-3869. doi:10.15703/kjc.14.6.201312.3849
- 유성경과 심혜원(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 윤순영과 민신홍(2014).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영적안녕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2(12), 395-403. doi:

10.14400/JDC.2014.12.12.395

- 윤영주와 김중경(2022).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및 인성과의 관계. *에듀테인먼트연구*, 4(2), 27-36. doi:10.36237/koedus.4.2.27
- 이가영, 최태월과 이용선(2015).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리뷰*, 6(2), 197-209.
- 이미라(2015).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진로선택몰입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2), 8767-8775. doi:10.5762/KAIS.2015.16.12.8767
- 이미라와 김미자(2018).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사로서의 직업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9(6), 197-208. doi:10.5762/KAIS.2018.19.6.197
- 이미련과 곽윤경(2017). 간호대학생들의 인성 분석: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특성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7), 491-499. doi:10.14257/ajmahs.2017.07.74
- 이미련과 남문희(2018). 간호대학생의 인성교육의 효과.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9), 553-562. doi:10.21742/AJMAHS.2018.09.61
- 이미영(2020). 대학생 멘토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 교육 프로그램이 멘토의 대인 의사소통능력, 인성,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시절환경*, 18(1), 13-23.
- 이순영과 정창숙(2017). 간호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진로선택몰입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한국웰니스학회지*, 12(4), 143-152. doi:10.21097/ksw.2017.11.12.4.143
- 이영미, 민하영과 이윤주(2004). 부모간의 갈등 및 성인애착에 따른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가정과삶의질연구*, 22(4), 63-72.
- 이영옥, 전윤희와 김미선(2018).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자아탄력성, 셀프리더십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환경학회지*, 25(3), 336-345. doi:10.21086/ksles.2018.06.25.3.336
- 이옥형(2012).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1), 29-57.
- 이외선, 홍민주와 구혜자(2016). 기숙사 거주 대학생의 학교생활 스트레스, 우울 및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9), 483-492. doi:10.5762/KAIS.2016.17.9.483
- 이재모(2008).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 실태 연구*. 석사학위,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이종현(2016). 대학 신입생들의 인성교육 경험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연구. *교양교육연구*, 10(2), 219-250.
- 이지연(2014) *한국인 해외유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석사학위,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임경민과 박정훈(2018).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9), 195-205. doi:10.5762/KAIS.2018.19.9.195
- 임미혜(2016). 간호대학생의 인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8), 560-568. doi:10.5762/KAIS.2016.17.8.560
- 임유하와 이영선(2019). 기숙사 거주 대학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경험 탐색: 관계성을 중심으로.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지*, 48, 111-131. doi: 10.20993/jSSW.48.5
- 장현진(2012). *기업 사내자격 소지자의 자격 취득 동기와 인적자원개발 효과 변인의 인과적 관계*. 박사학위, 서울대학교, 서울.
- 전미리(2020). 부모진로지지와 대학생의 성격요인이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효능감의 매개효과. *직업교육연구*, 39(4), 1-24. doi:10.37210/JVER.2020.39.4.1
- 정우정과 유명미(2019). 간호대학생의 인성, 문제해결능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지*, 19(16), 193-211. doi:10.22251/jlcci.2019.19.16.193
- 정은이(2014). 대학생의 진로 장애와 대학 적응의 관계에 대한 진로 몰입 및 진로 적응성의 매개 효과. *진로교육연구*, 27(2), 1-21.

- 정혜윤(2016).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우울,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융복합적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4(7), 259-268. doi:10.14400/JDC.2016.14.7.259
- 정효주와 정향인(2012). 3년제 간호대학 신입생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21(3), 188-196.
- 제남주와 박미라(2018). 간호대학생의 현장실습적응, 대학적응,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학과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10), 300-312. doi:10.5762/KAIS.2018.19.10.300
- 지영주와 양승경(2021). 신입생 적응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6), 215-223. doi:10.22251/jlcci.2021.21.16.215
- 지은주, 방미란과 전해진(2013).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9(4), 571-579. doi:10.5977/jkasne.2013.19.4.571
- 지희진(2013). 대학 교양 인성 교육에 대한 대학생 인식 탐색. *교양교육연구*, 7(5), 433-466.
- 진은영과 정춘화(2020). 간호대학생의 정신적 웰빙, 교수신뢰, 학습몰입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복지*, 22(1), 151-176. doi:10.23948/kshw.2020.03.22.1.151
- 최길순(2010). 대학 보건계열 학생의 중도탈락 의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 3(1), 22-33.
- 최민아, 신우열, 박민아와 김주환(2009).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우리를 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회복탄력성과 자기결정성을 통해본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역할. *한국언론학보*, 53(5), 199-220.
- 최성범과 한태용(2020). 대학생의 그것과 진로준비행동에서 진로선택몰입의 매개효과. *한국체육과학회지*, 29(5), 41-54. doi:10.35159/kjss.2020.10.29.5.41
- 최수정(2007).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 몰입과 가족변인에 관한*

- 구조방정식 모형. 석사학위, 서울대학교, 서울.
- 최연화(2022). 대학 신입생의 인성교육 참여가 자아탄력성과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교육문화연구*, 28(1), 81-95. doi:10.24159/joc.c.2022.28.1.81
- 최지혜와 박미정(2013). 일 지역 3 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방법론적 트라이앵글레이션 적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7), 339-349. doi:10.5392/JKCA.2013.13.07.339
- 최진주(2019).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계명대학교, 대구.
- 최효진과 이은주(2012). 간호 대학 신입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기본간호학회지*, 19(2), 261-268.
- 통계청(2021, 2021 December 31). 취학률 및 진학률 현황. Retrieved from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
- 하영자(2005). *공무원의 동기변인과 자기조절학습 수행력을 이용한 온라인 직무교육의 만족도, 성취도 및 직무몰입 수준의 예측*. 박사학위,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허명륜과 장양민(2019). 대학생 인성 측정도구의 타당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5(3), 321-330. doi:10.5977/jkasne.2019.25.3.321
- 황병의(2010). *중국유학생의 한국대학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 중앙대학교, 서울.
- 황선아(2019).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동료돌봄행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지*, 19(16), 807-823. doi:10.22251/jlcci.2019.19.16.807
- 황성자(2006).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2(2), 205-213.
-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 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doi:10.1037/0022-0167.31.2.179
- Blau, G. J. (1988). Further exploring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career commi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3), 284-297. doi:10.1016/0001-8791(88)90020-6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doi:10.4324/9781315803029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 doi:10.1037/0022-3514.70.2.349
- Blustein, D. L., Ellis, M. V., & Devenis, L. E. (1989).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wo-dimensional model of the commitment to career choices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3), 342-378. doi:10.1016/0001-8791(89)90034-1
- Csikszentmihalyi, M. (2004). *Good business: leadership, flow, and the making of meaning* (1st ed.). NY: Penguin Books.
- Delgado, L., & Erickson, L. V. (2006). Off-campus student housing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98(4), 5-9.
- Duffy, R. D., Dik, B. J., & Steger, M. F. (2011). Calling and work-related outcomes: Career commitment as a mediato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8(2), 210-218. doi:10.1016/j.jvb.2010.09.013
- Faul, F., Erdfelder, E., Lang, A. G., & Buchner, A. (2007). G* 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 Fuqua, D. R., Seaworth, T. B., & Newman, J. L. (1987). The relationship of career indecision and anxiety: A multivariate examin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2), 175-186. doi:10.1016/0001-8791(8

7)90017-0

- Gordon, V. N., & Steele, G. E. (2015). *The undecided college student: A n academic and career advising challenge* (4th ed.). Springfield, US: Charles C Thomas Publisher.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2), 119-133. doi:10.1016/0001-8791(79)90065-4
- Jackson, D., Firtko, A., & Edenborough, M. (2007). Personal resilience as a strategy for surviving and thriving in the face of workplace adversity: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0*(1), 1-9. doi:10.1111/j.1365-2648.2007.04412.x
- Kahn, R. L., & Antonucci, T. C. (1980). Convoys over life courage. Attachment, role and social support.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3*, 253-258.
- Luthar, S. S., & Cicchetti, D.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s and social polici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4), 857-885. doi:10.1017/S0954579400004156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9*(11), 159-187.
- Misra, R., McKean, M., West, S., & Russo, T. (2000). Academic stress of college students: Comparison of student and faculty perceptions. *College Student Journal*, *34*(2), 236-245.
- Numminen, O. H., Leino-Kilpi, H., Van der Arend, A., & Katsjisto, J. (2009). Nursing students and teaching of codes of ethics: An empirical research study.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56*(4), 483-490. doi:10.1111/j.1466-7657.2009.00748.x
- Takahashi, K., & Sakamoto, A. (2000). Assessing social relationships in adolescents and adults: Constructing and validating the Affective Relationships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 ent*, 24(4), 451-463. doi:10.1080/016502500750038008
- Tang, C. J., Chan, S. W., Zhou, W. T., & Liaw, S. Y. (2013). Collaboration between hospital physicians and nurses: An integrated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60(3), 291-302. doi:10.1111/inr.12034
- Uslu, M., & Girgin, C. (2010). The effects of residential conditions on the problem solving skills of university student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2), 3031-3035. doi:10.1016/j.sbspro.2010.03.459
- Weis, D., & Schank, M. J. (2000). An instrument to measure professional nursing valu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2(2), 201-204. doi:10.1111/j.1547-5069.2000.00201.x
- Wintre, M. G., & Yaffe, M. (2000). First-year students'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as a function of relationships with par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5(1), 9-37. doi:10.1177/074355840015100

부 록

부록 1. IRB 심의결과통지서

<별지서식 14호>

계명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결과통지서

문서번호	계명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2022-114	발송일자	2022. 06. 15.
연구과제명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관련요인		
IRB No.	40525-202203-HR-007-02		
연구책임자	황보경	소 속	간호학과
심사일자	2022. 06. 08.		
심사결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승인 (○) <input type="checkbox"/> 시정승인 () <input type="checkbox"/> 보 완 () <input type="checkbox"/> 재심의 () <input type="checkbox"/> 반 려 () <input type="checkbox"/> 부 결 ()		
총 연구기간	IRB 승인일로부터 1년		
위원회 연구승인 유효기간	2022. 06. 08. 부터 2023. 06. 07. 까지		
	<input type="checkbox"/> 총 신청 연구 기간이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승인 유효기간을 초과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지속심사' 승인을 받아야 연구지속 진행이 가능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연구종료 시 종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의견 (권고 사항 포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적된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하였음.		
이의신청	연구책임자는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사안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재심은 하지 않습니다.		
<p>위와 같이 생명윤리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06월 15일</p> <p style="text-align: center;">계명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p>			

부록 2. 모집공고문 및 연구참여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 설문은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22학년도 D광역시 소재하는 간호대학의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자입니다.

[선정기준]

- 1) 2022학년도 간호학과 신입생으로 D광역시에 거주 중인 타 지역 출신 인 자
- 2) 간호학과 입학 후 3개월 이상의 대학생활을 한 자
- 3)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

설문 참여 방식은 구글 설문지(<https://forms.gle/YwoEwEgBMNkmab9Y9>)로, 설문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응답합니다.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후 일반적 특성,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 대학생활 적응의 총 118문항의 질문에 응답하게 되며,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문참여를 완료한 분들께는 설문참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모바일 SNS 선물하기를 통한 5,000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할 것이며, 이를 위해 수집한 휴대폰번호는 답례품 발송 후 곧바로 삭제될 것입니다.

위의 설문에 대한 참여 여부는 자유의사에 의한 것입니다. 연구참여 동의 이후 언제든지 설문조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귀하가 작성해주신 설문의 내용과 연구결과는 오직 연구목적에 의해서만 사용되며, 모든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연구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최소이나, 연구 도중 시간적, 심리적 불편함이 생긴다면 담당연구자에게 즉시 문의하여 주십시오. 필요 시 귀하께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거주하고 있는 구의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료 심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연구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계명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계명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전화번호: 053)580-6299

전자우편: kmirb@kmu.ac.kr

연구책임자: 황보 정(010-8xxx-2xxx)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과제명 :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황보 정 연구책임자가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연구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의 동의는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 이 문서에 대한 귀하의 동의는 귀하께서 본 연구에 참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입니다.

2. 연구 참여 대상

- 1) 2022학년도 간호학과 신입생으로 대구광역시에 거주 중인 타 지역 출신인 자
- 2) 간호학과 입학 후 3개월 이상의 대학생활을 한 자
- 3)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

3. 연구 참여 절차 및 방법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해당기관에 자료수집에 대한 승인과 협조를 받은 후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문을 각 간호대학 간호학과 게시판을 통해 공지합니다. 모집공고문을 보고 연구 참여의사를 밝혀 모바일 SNS 채널로 접속한 연구대상자에게 모바일 SNS 채널의 공지사항 전달기능을 통해 자료 수집 전 연구의 목적, 내용과 방법 및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에 한해 온라인 설문지 동의서에 동의를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할 것입니다.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구광역시 소재 2022학년도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은 온라인설문지를 1회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14문항), 인성(37문항), 자아탄력성(14문항), 진로선택몰입(19문항), 대학생활 적응(34문항)으로 총 1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지 작성에는 평균 30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

연구 기간은 2022년 6월 20일부터 2022년 7월 1일 까지이며, 귀하는 해당연구 기간 중 1회의 설문지 작성을 요청받을 것입니다.

5. 부작용 또는 위험 요소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는 최소입니다. 하지만, 연구 도중에라도 시간적, 심리적 불편감이 생긴다면, 담당연구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필요 시 귀하께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거주하고 있는 '구'의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료 심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계할 것입니다.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www.dgmhc.or.kr/#none>,

남구: 053-628-5863, 달서구: 053-637-7851, 중구: 053-256-2900, 북구: 053-353-3631)

6. 연구 참여에 따른 혜택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관련요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연구를 통해 파악된 대학생활 적응 관련요인은 대학생활 적응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7.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 또는 비용

연구 설문을 끝까지 완료한 대상자에게 설문참여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모바일 SNS 선물하기를 통해 5,000원 상당의 커피쿠폰이 제공될 것입니다.

8. 개인정보와 비밀 보장(개인식별정보,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수집 여부 및 수집하게 되는 개인정보의 목록 나열 그리고 이에 관한 사항)

본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 특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 인성, 대학생활 적응의 정보는 연구를 위해 1년간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자료 수집 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내용 및 방법 및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며 연구 참여 보상을 위해 만들어진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의 1:1 모바일 SNS 채널 대화방은 연구 참여 보상 이후 해당 대화방을 삭제할 것입니다.

커피쿠폰은 온라인 설문지 작성 완료 후 온라인으로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입하게 한 후 모바일 SNS 선물하기로 제공할 것입니다. 단, 수집된 개인정보는 연구자가 따로 작성하여 코드화 합니다. 회수된 온라인 동의서, 설문지 및 개인정보목록의 전자 자료는 암호화된 USB에 저장되어 장금장치가 된 서류에 보관하여 연구 종료 3년 후 문서파일을 영구 삭제하여 폐기할 것입니다.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한다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계명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관련 자료를 직접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동의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연구 종료 후 연구 관련 자료(기관위원회 심의결과, 서면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현황, 연구종료/결과보고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연구종료 후 3년간 보관됩니다. 보관 기간이 끝난 전자 자료는 영구 삭제하여 폐기될 것입니다.

9.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자발적 연구 참여와 중지)

동의한 이후, 동의 철회를 원할 경우 조사된 자료를 폐기하도록 요청하실 수 있으며 연구에 동의하셔도 중간에 귀하가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연구에 사용된 정보와 모든 자료는 즉시 폐기됩니다.

10. 연구 문의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의 연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이름: 황보정 전화번호: 010-8xxx-2xxx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계명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계명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전화번호: 053-580-6299 전자우편: kmirb@kmu.ac.kr

연구책임자 이름: (서명) 날짜: . .
 연구참여자 이름: (서명) 날짜: . .
 (필요 시)
 법정대리인 이름: (서명) 날짜:

부록 3. 설문지

1) 일반적 특성

다음은 귀하의 기본 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나이는? 만 ()세
3. 귀하의 종교는?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없음 ⑤ 기타()
4. 귀하의 건강상태는? ① 나쁨 ② 보통 ③ 좋음
5. 가정의 경제수준은? ①하 ② 중 ③ 상
6. 귀하의 본 거주 지역(출신지)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해외 ⑱ 기타 ()
7. 귀하의 거주형태는? ①기숙사 ② 자취 ③ 하숙 ④ 친척집 ⑤ 기타
8. 귀하의 현 거주지에 함께 사는 동거인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바로 9번 문항으로 가세요.)
- 8-1. 동거인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① 친구 ② 형제 ③ 친척 ④ 부모님 ⑤ 기타()
9. 귀하의 형제자매 수는?
 ① 본인포함 1명 ② 본인포함 2명 ③ 본인포함 3명이상
10. 대학 내에서 귀하의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는 몇 명인가요?
 ① 0~2명 ② 3~5명 ③ 6명이상

11. 귀하는 학교생활 이외에 수익창출을 위한 일을 하나요?

① 예 ② 아니오(바로 12번 문항으로 가세요.)

11-1.귀하의 학교생활 이외에 수익창출을 위한 일은 어떤 것인가요?

① 과외활동 ② 아르바이트 ③ 개인사업
④ 유튜브 또는 개인방송 ⑤ 기타()

12. 귀하의 동아리 활동 경험은? ① 있음 ② 없음

13.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중복선택 가능)

① 본인의 적성을 고려해서 ② 부모님의 의견을 고려해서 ③ 취업률을 고려하여 ④
수능 점수에 맞춰서 ⑤ 기타:()

14.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2) 인성

다음 문항은 귀하의 ‘인성’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아래 문항들을 잘 읽으시고 느낀 점을 해당 번호에 ‘√’ 표 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예절은 사회적 약속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예절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바른 몸가짐과 태도를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불편하더라도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예절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예절 바른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인 행동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부모님과 상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부모님의 기분과 마음을 잘 파악하여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가사일이나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잘 도와드린다.	①	②	③	④	⑤
9. 부모님께 말을 할 때는 조심스럽고 예의바르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부모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평소에 성실하게 생활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말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사실인 양 말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때로는 거짓 자랑을 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자신이 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거짓 비방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매장의 점원들에게 말과 행동을 예의바르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분리수거에 힘쓴다.	①	②	③	④	⑤
18. 어린아이들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9. 자연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나의 행동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우리 팀의 공동 과제를 산출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낸다.	①	②	③	④	⑤
22. 팀 과제 수행 시 팀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팀원들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우리 팀이 과제 수행을 할 때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맡는다.	①	②	③	④	⑤
25. 우리 팀의 목표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합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의 행동이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사회적 규칙과 규범을 준수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우리 사회의 유익한 일에 관심과 책임감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29. 우리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 긍정적 상호작용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내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타인이 발표할 때 발표를 잘 할 수 있도록 성의껏 듣는 태도를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32. 다른 사람이 불편한 상황일 때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33.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지 항상 신경을 쓴다.	①	②	③	④	⑤
34. 타인이 말할 때 재미가 없어도 재미있게 들어주고 웃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내 의견과 달라도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 의견을 수정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이해하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자아탄력성

다음 문항은 귀하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아래 진술문들이 자신을 어느 정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표 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친구에게 너그럽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인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늘 가던 정소에 갈 때 여러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보통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새롭고 다른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매일 생활은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나 자신이 꽤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상당히 빨리 괜찮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4) 진로선택몰입

다음 문항은 귀하의 '진로선택몰입'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현재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직업을 실제로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어떤 하나의 직업에 전념하기 전에 나의 흥미, 능력, 가치관 등 내 자신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진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진로목표를 정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가장 흥미를 느끼고 있는 직업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분야에 존재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취업 및 진학을 위해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 하나의 대안에만 전념하는 것이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어떤 하나의 직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직업을 선택하고 전념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하나의 진로목표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전공이 자주 바뀐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어떤 하나의 직업을 선택하고 전념할 만큼 나의 흥미, 능력, 가치관 등의 내 자신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앞으로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특정한 진로목표에 전념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직업, 결혼 등과 관련한 인생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전념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분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진로목표에 전념하기가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선택 가능한 대안들이 다양하게 주어질 때 이 중 최선의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나는 나의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나의 진로계획을 확신하기가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어떤 하나의 직업에 완전히 전념할 만큼 여러 가지 직업들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진학 및 진로에 대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내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싶은지 확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현재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분야에 경쟁이 치열해져서 그 직업을 갖기 어려워진다면 다른 직업을 찾아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대학생활 적응

다음 문항은 귀하의 ‘대학생활 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경험한 것을 고려하여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과 친구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학과 선후배들과 관계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학과 내의 인간관계에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학과 친구들과 협력하며 그룹과제를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 고민거리를 털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학과 내에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학과 내에서 이성 친구들과 잘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간호학과 문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학과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내가 선택한 전공에 후회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간호학 전공을 계속 해야 할지 고민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간호학과 에 다니는 목표가 뚜렷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지인들이 학과 선택할 때 간호학과를 추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내 적성이 전공 교과목 내용과 잘 맞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졸업 후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최근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가 간호사로서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간호학과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나의 학업성적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나는 전공 강의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간호학과 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공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학과 공부를 미루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다시 도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나의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학과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에 잘 대처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취업준비를 위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외국어 점수를 관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강의에 충실히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전공 강의에 집중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강의의 발표나 과제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The Effect of Personality, Self-Elasticity,
and Career Choice Immersion of a Freshman in Nursing
Living in Other Regions on College Life Adaptation

Hwangbo, Jeo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Hee Ok)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to improve the level of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living in other regions by checking the degree of adaptation to college life, identifying the effect of personality, self-elasticity, and career choice on college life adaptat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75 freshmen from nursing departments living in other regions at 7 universities in D Metropolitan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an online questionnaire from June 20, 2022 to July 1, 2022.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WIN 28.0, and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One-Way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e personality of nursing freshmen living in other regions averaged 4.10 ± 0.41 points out of 5, self-elasticity averaged 3.55 ± 0.62 points, career choice

commitment averaged 3.36 ± 0.59 points, and college life adaptation averaged 3.63 ± 0.58 points. The influencing factor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is self-elasticity ($\beta = .39$, $p = .000$), personality ($\beta = .27$, $p = .000$), Nursing Satisfaction ($\beta = .27$, $p = .000$), career choice commitment ($\beta = .17$, $p = .003$),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for adaptation to college life was 64.8%. So Efforts are required to develop education, training, and curriculum activities to improve self-elasticity, develop proper personality, increase nursing satisfaction, and improve the level of career choice commitment for nursing freshmen living in other regions.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황 보 정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지도교수 박 희 옥)

(초록)

본 연구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확인하고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D광역시 7개 대학의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 175명이었다. 자료는 2022년 6월 20일부터 2022년 7월 1일까지 온라인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인성은 5점 만점에 평균 4.10±0.41점, 자아탄력성은 평균 3.55±0.62점, 진로선택몰입은 평균

3.36±0.59점, 대학생활 적응은 평균 3.63±0.58점이었다.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자아탄력성($\beta=.39$, $p=.000$), 인성($\beta=.27$, $p=.000$), 간호학 만족도($\beta=.27$, $p=.000$), 진로선택몰입($\beta=.17$, $p=.003$)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64.8%였다.

이상의 결과로,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수준의 향상을 위해 자아탄력성의 증진, 올바른 인성 함양, 간호학 만족도 상승 및 높은 진로선택몰입 수준의 증진을 위한 교육과 훈련 및 교과 활동의 개발 노력이 요구된다.